

i llustration

C opy

2419 엄태성

2610 나누리

2616 오인탁

2617 이병헌

2716 유연송

1301 김상기

1304 김의혁

◆ 동아리 소개 및 개설 목적

「일러스트 카페」는 입시, 취미 등 다양한 수단과 목적으로 미술을 접하고 있는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신이 그려내고 있는 미술세계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을 선후배,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감상평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작품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강점, 보완해야 할 점을 알아감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설하였다.

◆ 동아리 활동 주요 내용

◆ 작품 활동

동아리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로이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작품 활동 도중에도 구성원 간 끊임없는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강점과 보완점을 알아가고, 서로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였다.

◆ 감상 활동

동아리 시간 내, 또는 개인 시간에 실시한 작품에 제목을 붙이는 활동과 구성원들의 작품을 감상평을 위한 활동지와 함께 모두 커다란 테이블에 위치한 후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활동지에 자유롭게 서술한 뒤 감상이 모두 끝난 뒤 서로의 작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성된 활동지는 작품의 주인이 모두 읽은 후 그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나누는 활동을 하였다.

◆ 미술관 견학

규칙적이고 쉬이 시간을 내기 힘든 학사기간보다 비교적 시간적,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방학기간에 멀지 않은 미술관을 견학하였으며, 평면적인 작품에서 벗어나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가졌다.

◆ 전시회 견학 후 감상

◆ 전북도립미술관 - 변방의 파토스 展

◆ 나누리

미술관을 좋아하지만 어느 미술관이 좋은지, 또 미술관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 찾지 않았던 미술관을 이번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도립미술관을 찾았다. 부장으로 미술관 답사 겸 한 번, 동아리 활동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면서 미술관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사실 좋은 미술관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의 작품을 발견한다면 좋은 미술관(좋아하는 미술관)이 되고, 그런 미술관은 미술관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 오인택

둘러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작품도 있었지만 인간의 우상숭배를 비판하거나 인류가 겪은 고통이나 사회에 대한 일침 등과 기발한 상상력 등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았다. 또한 작품과 제목이 맞지 않는 역설도 있었고, 작품만 봐서는 알지 못할 것 같은 추상화들도 있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여러 작품을 보았고 나쁘지 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여러 유명한 미술가도 알게 되었고, 영상을 통해 느낀 점도 있어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이병헌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작품을 감상하고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였다, 감상 중 해리도너를 발견했는데 그의 작품에 굉장히 독특한 설치 미술들이 많았다. 그의 창의적인 설치 미술들을 보고 데이비드가 떠올랐다. 데이비드의 창의적인 그림과 도너의 설치미술이 만나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 질까 하면서 말이다.

이번 미술관을 다녀옴으로 인해 미술이 꼭 실제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아무렇게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설명을 한다면 그것도 그림(미술), 혹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혼자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했다.

◆ 유연송

이번에 본 전시는 <변방의 파토스>라는 전시이다. 신기한 작품들도 많았고 마음에 드는 작품들도 많았다. 북이 쳐지고 불빛이 들어오는 마차도 있었고 아람어 서체와 로마 알파벳, 숫자로 여러 가지를 표현한 작품도 있었고 사람을 신문지에 싸여진 것처럼 표현한 작품도 있었다. 또 다시 오고 싶은 전시였다. 자신을 찍어 두긴 했지만 직접 보는 것보다 사진이 더 나을리 없어 떠나기 아쉬웠다.

◆ 김상기

현대미술은 조금 지루하고 전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변방의 파토스> 展을 보고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고, 의외로 지루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작품을 내놓은 작가들의 생각을 엿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 김의혁

이번 기획전 관람으로 전북도립미술관이 <아시아 지도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평가 풍자 또한 말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활동 사진



▲ 전시회 입구에서 관람을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



▲ 전시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기억에 남는 작품

◆ 본 동아리의 활동지와 작품은 지면 보고서로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